

## 제18회 오륙도사랑걷기대회 Sketch

## “걷고 또 걷다보니 자꾸만 행복해져요”



제18회 오륙도사랑걷기대회에는 2,500여명의 주민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이 이기대 순환도로를 즐겁게 걷고 있다.



이종철 구청장과 김정훈 국회의원, 이희철 의장, 강이수 회장이 참가자들과 짝을 이뤄 즉석 노래대결을 펼치고 있다.



용호동 성우산악회 김재욱씨와 김영자 여성산행대장 등이 다정하게 이기대를 걸으며 산악회의 단합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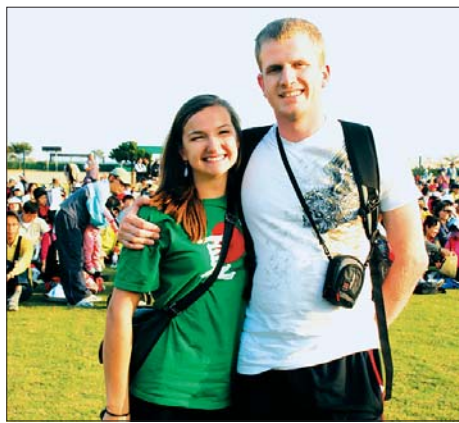


이기대를 관할하고 있는 7508부대 소속 송승후 소위 등 6명의 장병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걸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드림세탁기를 경품으로 받은 박미향(김만1동)씨가 이종철 구청장과 함께 즐거워 하고 있다. 행운의 번호는 448.

## 이기대 너무 아름다워요!



걷기대회에 처음 참가한 빌리 쿠파.루다 살렘스킨씨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는 모습이 꼭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걷기대회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친절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 습니다”

미국인 빌리 쿠파(남·25)씨와 루다 살렘스킨(여·23)씨는 지난 10일 열린 제18회 오륙도사랑걷기대회 전 구간을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미국에서의 색다른 경험을 했다.

두 사람은 연인사이로 6주전 한국에 왔다. 현재 연지초등학교와 성천초등학교 원어민 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들은 우연히 친구들로부터 걷기대회에 참가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

쿠파씨는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에 한번 놀랐고 함께 걸으며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며 “이번 걷기대회에 참여하면서 한국과 한국인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계 미국인인 살렘스킨씨는 “우암동에 살고 있는 남구민으로서 이기대와 같은 절경이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본국 친구들에게 자랑하겠다고 말했다.

## 청명한 가을하늘 즐거운 참가주민

## 이모저모

2,500여명 운집 가족단위 참가

이기대 걸으며 가을 정취 만끽

지난 10일 오후 2시 용호동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체육공원에는 운동복 차림의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제18회 오륙도사랑걷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남구생활체육협의회 소속 강사의 구령에 맞춰 스프레이를 마친 후 출발 신호에 맞춰 이기대순환도로를 걷기 시작했다. 다소 따가운 가을 햇살이었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어 걷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 2,500여명의 참가자들은 이기대를 걸으며 가을 초입의 정취를 느끼며 건강을 다졌다. 특히 멀리 보이는 광안대교와 해운대를 바라보며 이곳 이기대의 가치를 또 한번 확인했다.

○… 가족단위의 참가자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어린 아들을 목에 태우고 걷는 아빠와 곤하에 잠든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짓는 엄마, 손자 손녀와 함께 할박웃음을 지어보이는 할아버지까지 모두들 행복하듯 오후 한때를 즐겼다. 이와 함께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어 오륙도 사랑 걷기대회회가회를 거듭할수록 주민 모두의 건강다짐 행사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산악회 회원들의 참여도 많았다. 여러 가지 사정상 산에 오르지 못하는 아쉬움을 걷기운동으로 달래며 웃음꽃을 피웠다.

이밖에도 10년 지기 친구와 손을 잡고 걷는 중년 여성과 한국에 입국한 지 6주

됐다던 벽안의 외국인까지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걷기대회를 통해 하나가 됐다. ○… 5.5km구간의 이날 걷기대회 코스인 최종 목적지인 용호동 백운포 체육공원, 1~2시간 만에 도착한 주민들은 푸른 잔디밭에 앉아 지친 몸을 달래며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경품추첨 행사를 기다렸다.

○… 경품추첨에 앞서 열린 식전 행사에는 걷기대회 전 구간을 주민들과 함께 걷는 이종철 구청장과 김정훈 국회의원, 이희철 의장, 강이수 생활체육회장 등이 참가주민들과 짝을 이뤄 즉석 노래대결을 벌여 큰 웃음을 선사했다.

○… 경품은 윗날과 자전거, 디지털 카메라, 세탁기 등 700여점이 추첨을 통해 골고루 나눠졌다. 영예의 세탁기 당첨자는 김만1동에 살고 있는 박미향씨에게 돌아갔다. 주영란·김정희·문민희 기자

제18회 『오륙도사랑』 걷기대회 협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이수 생활체육회 회장(드림세탁기)  
1) △남구체육회이사 일동(디지털카메라)  
3) △김영식 남구체육회상임부회장(자전거)  
5) △남계군 우암동 탐세일바드트레드(자전거)  
7) △스우정기 남구체육회이사(아니스트)  
60) △이혜운 남구체육회이사(손소독제)  
100) △이마트 문현점(식수 3,000)

## 남구탐방 명품 건강길을 걷다

④ 문현동~문현배수지~바람고개~편백림  
~금련산 청소년수련원~대남초등학교

약 2km 남짓 걸으면 돌산4길이라는 표지판이 보인다. 상당히 가파른 길이다. 부성고등학교 정문을 지나 셋길로 빠져나간다. 문현동 옛길이다. 이곳은 진구와 남구의 경계다.

영화 ‘마더’와 벽화마을 스페이트 지붕을 엮은 작은집과 좁은 길이 참으로 정겹다. 문을 열면 길이고 또 앞집이 훤히 보이는 담동네 특유의 평화로움이 느껴진다. 집과 골목 사이로 1평 남짓한 텃밭에 고추가 빨갛게 익고 있다. 바로, 커다란 눈망울이 진짜 모자(母子)처럼 보이는 원빈과 김혜자가 열연 했던 영화 ‘마더’ 촬영지인 벽화 마을이다. 넓은 바다위에 동계구름이 지나고 갈매기가 날고 이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나는 그림도 있다. 담장의 크기에 따라 그림을 맞추었기 때문인지 벽화가 제각각이다. 문득 수족관에서 하늘로 물방울이 오르는 그림에 눈길이 머물렀다. 좁은 집의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늘로 오르는 원대한 꿈을 그린 듯하다. 작은 감동이 가슴을 울린다.

고개를 드니 눈 앞에 황령산 문현 배수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서둘러 진남로(고개 도로)를 가로질러 황령산 임도로 들어섰다. 이곳을 황령산 들머리로 걸었다.

느슨해진 신발끈을 짚곤 잡아매고 묘지 임도를 지나 약수터 뒷길을 택해 걷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풀 풀댄다. 길가의 억새와 코스모스가 작은 바람에 아양 떠는 모습을 보니 미소가 절로 인다. 풀벌레 울음을 따라 허밍하며 약 3km쯤 걸으니 통나무 새길과 흙길로 나뉜다. 잠시 망설이다 흙길로 걸었다.

가벼운 오르막이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생각했더니 바로 바람이 휘돈다는 바람고개다. 4개의 표지판을 달고 이정표가 서 있다. 경성대 남구 도서관(오른쪽) 배수대길(왼쪽) 우리는 청소년 수련원쪽을 향해 바람을 맞으며 직진했다. 편백나무 길을 걸을 때마다, 100m 남짓 걸으니 곧바로 편백나무 숲 길이다.

편백림에 빠지다 짙은 편백 사이에서 서니 도심 한 복판이라는 실감이 나지 않을 만큼 조용하다. 매미와 산새 울음소리가 오히려 고요함을 부추기 듯 감미롭다. 1976년부터 1981년 까지, 보다 웅장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76ha의 면적에 굵기 20cm 안팎의 30여년생 19만여본이 빼곡이 도열한 편백나무 숲은, 심신을 정화시키는 삼림욕을 즐기기에 그만이다. 특히 편백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phytoncide)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아토피 등 각종 피부병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일까, 편백 나무 숲 아래 바위에 상을 펴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여럿 보인다. 우리도 편백나무에 등을 기대었다. 두 팔을 벌려 크게 심호흡을 하고 정중동(靜重動) 자세로 잠깐 마음을 비웠다. 그리고 한층 상쾌해진 기분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30여분 걸다보니 오른쪽으로 하산길이 보인다. 동광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이다. 우리는 그 길을 무시한 채 그대로 앞을 향해 걸었다. 청소년 수련원 1.9km라는 팻말을



황령산 편백나무숲은 언제 걸어도 상쾌하다.

지나쳤다. 길가에 스크림(강아지풀 일종)과 억새가 군락을 이루어 피어 있다. 사이사이로 검붉은 열매를 매단 자리공도 많이 보인다.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길이라서 적막한 가운데 우리 발걸음 소리가 둔탁하게 산길에 퍼져나간다. 잘 댈인 임도지만 마냥 걷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편안한 듯하지만 지루한 감도 없지 않다. 그렇게 다시 약 15분을 걸으니 왼쪽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작은 물줄기가 보인다. 손을 씻기에도 부족할 만큼 약하지만 풀풀대는 물소리가 반갑기 그지없다. 다시 다리에 힘을 주며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어느 산처럼 이곳도 예외 없이 까치가 길동무를 해준다.

가을의 길목에 서서 자갈길에 약간 가파르기까지, 다리는 빠근하지만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나무를 보니 가슴이 뭉클하다. 자연의 섭리는 참 오묘하기도 하다. 가만히 있어도 꽃이 피고 낙엽이 진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이다. 약 30분, 어느새 황령산 정상으로 가는 큰길에 다다랐다. 왼쪽으로 오르면 황령산 송신탑 방향이고 정면으로 가면 청소년 수련원으로 들어간다. 이곳이 남구와 수영구의 경계이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돌아 스노우게을 열 임도로 들어섰다. 하산이다. 내리막길은 통나무 계단길이다. 숲 사이로 난 작은 길을 따라 가파르지 않게 계단을 만들어 걷기가 어렵지 않다. 오른쪽으로 대남초등학교가 왼쪽으로는 대연 성모병원도 보인다. 예사무 교회를 지나고 마을길인 대동길로 들어서니 황령산 터널 입구가 코 앞이다. 오른쪽으로 1번 마을버스 표지판이 서 있다. 이곳이 이번 명품길 구간의 끝이다. 이제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가끔은 삶의 대열에서 벗어나, 도시의 산책로를 걸으며 자신을 돌아보자. 찢은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책갈피에 끼을 낙엽 한 장 주워드는 여유를 가져보자. 유치해 보이겠지만 잠깐이나마 동심으로 돌아가는 평화를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끝

조을흥 기자  
그동안 ‘남구탐방 명품 건강길’을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11월 산행을 떠나요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1동	산정산악회	8(일)	경북 김천 황악산	621-2455 011-9391-9780
대연2동	대이산악회	22(일)	노고단 뱀사굴	010-3579-9696
대연3동	대이산악회	22(일)	봉화 황령산	010-8240-2227
대연4동	유연산악회	15(일)	양산 영축산	016-553-2075
대연5동	중영산악회	1(일)	지리산 만복대	010-5283-4895
대연6동	신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1-869-1648(회장)
대연7동	대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6-567-9443
대연8동	대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6-567-6242
대연9동	대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0-3865-6930
대연10동	대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0-5670-6655(회장)
대연11동	대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0-3554-4392
대연12동	대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1-865-9051
대연13동	대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1-860-7603
대연14동	대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7-641-4645
대연15동	대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6-564-8882
대연16동	대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6-565-0004
대연17동	대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0-3851-6634
대연18동	대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1-596-7058
대연19동	대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0-8281-1192
대연20동	대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1-9315-6431
대연21동	대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6-840-7697
대연22동	대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1-855-7611
대연23동	대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1-9524-8224(회장)
대연24동	대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1-9321-6363
대연25동	대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0-3889-2746
대연26동	대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0-9533-0001
대연27동	대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6-570-0539
대연28동	대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0-6573-9090
대연29동	대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0-9237-0220
대연30동	대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1-589-1888
대연31동	대오산악회	1(일)	문경 마애봉	010-2549-4656

## 생활체육회 교실에 참여하세요

교실	요일	시간	정원	수업장소	수업기간	접수기간
생활체육회	화·금	11:00 ~ 12:00	25명	대호레포츠 (대연동공구)		
A반		12:00 ~ 12:50	35명	용호레포츠 (용호3동공구)		
B반		13:00 ~ 13:50	35명	대호레포츠 (대연동공구)		
C반		14:00 ~ 14:50	35명	대호레포츠 (대연동공구)		
D반	월·수·금	12:00 ~ 12:50	35명	대호레포츠 (대연동공구)		
E반		13:00 ~ 13:50	35명	대호레포츠 (대연동공구)		
F반		12:00 ~ 12:50	30명	대호레포츠 (대연동공구)		
G반		13:00 ~ 13:50	30명	대호레포츠 (대연동공구)		
A반	월·수·금	10:00 ~ 11:30	15명	유연레포츠 (유연동공구)		
B반		11:30 ~ 13:00	15명	유연레포츠 (유연동공구)		
초급	월·화·목·금	09:30 ~ 11:00	20명	백운포 테니스장 (용호동 버스종점)		
중급		11:00 ~ 12:30	15명	백운포 테니스장 (용호동 버스종점)		
A반		09:00 ~ 10:00	25명	대연레포츠 (대연동공구)		
B반		10:00 ~ 11:00	25명	대연레포츠 (대연동공구)		
C반	월·수·금	11:00 ~ 12:00	25명	대연레포츠 (대연동공구)		
D반		12:00 ~ 13:00	25명	대연레포츠 (대연동공구)		
E반	화·목	09:30 ~ 10:30	25명	대연레포츠 (대연동공구)		
F반	월·수·금	10:30 ~ 11:30	25명	대연레포츠 (대연동공구)		
G반	화·목	11:30 ~ 12:30	25명	대연레포츠 (대연동공구)		
A반		09:00 ~ 10:30	20명	대연레포츠 (대연동공구)		
B반		10:30 ~ 12:00	20명	대연레포츠 (대연동공구)		
C반	화·목	13:00 ~ 14:30	20명	대연레포츠 (대연동공구)		
D반		14:30 ~ 16:00	20명	대연레포츠 (대연동공구)		
E반		16:00 ~ 17:30	20명	대연레포츠 (대연동공구)		
F반	월·수·금	10:30 ~ 12:00	35명	대연레포츠 (대연동공구)		
G반		12:00 ~ 13:00	35명	대연레포츠 (대연동공구)		

\* 접수처: 남구생활체육회 ☎ 644-7330, 607-4385